

# 李,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행위 강력 응징”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엄단  
공소시효 배제하는 입법 필요”  
역사왜곡 발본색원 의지 담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진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왜곡, 회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정원오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 가져  
“성수동처럼 지역경제 확산” 약속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새로운 서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성동구에서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펼쳐 살기 좋은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는 이해식·박성준·서영교·전현희·고민정 의원 등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약 300명의 지지자가 함께했다.

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며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이태원 참사 등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며칠 전엔 삼성역 역사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는데)

현 시장 오세훈 후보는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안전한 서울을 원하시면 정원오에 투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선거”라며 “오세훈 후보가 일을 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동구를 언급하면서 “(성동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성수동에선 거의 공실을 찾을 수 없다”며 “지역경제를 성동구 성수동처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동구 같은 서울시를 원하시면 투표로 바꿔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출정식 후 삼성역 공사 현장 방문, 고속터미널역 지역유세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오세훈 “독주 정부에 경고장 보내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선거 유세 시작  
GTX 공사 논란에 “진실 밝혀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주택가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출정식을 하고 유세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 골목에서 출정대 시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곳은 오 후보가 유년시절을 보낸 동네이기도 하다.

오 후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변화가 이곳 강북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오만한이 주저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미 독재의 길로 들어선 정부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서운 경고장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유 전 의원이 일정에 함께한 데 대해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모든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경계를 챙기기 위해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선배와 함께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철근 누락 은폐’ 논란이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빛속에서 벗짚에 성냥불을 그어 대도 불이 붙지 않는다”며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고, 어떠한 오해 없이 서울시가 초기에 완벽하게 원리-원칙대로 이 사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며 출정 대시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을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이상 더 이상 민주당의 전략에 밀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지도부와 일정을 함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메시지로, 제 브랜드로, 제 정책으로 서울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정부 투쟁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청년이 체감하는 대학도시 성북 만들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④ 홍희진  
진보당 성북구청장 후보

서울 자치구 중 최연소 구청장 후보  
‘상생학사’로 대학생 주거 부담 해소

홍희진 진보당 성북구청장 후보(1994년생)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최연소 구청장 후보자다. 홍 후보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재학 중 교비를 횡령한 총장을 상대로 학우들과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 결국 성신여대에 총장직선제가 도입됐다.

홍 후보는 진보당 인권위원장, 김재연 대통령 선거 후보 ‘2030여성 선대위’ 위원 등 진보 정당 정치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고 진보당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 단장을 맡아 답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차별없는 모두의 성북’이다. 홍 후보는 “대학생, 청년, 장애인, 재개발 지역 세입자, 문화예술인, 여성, 성소수자 등 그 누구도 밀려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성북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지역 내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재학생 수는 7만여명에 달한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성북구 345명의 대학생을 직접 만났다.

홍 후보는 “대학이 이렇게나 많은 ‘대학도시’ 성북에 대해 정작 대학생,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학가 인근 비싼 원룸 월세, 면접 서류를 낸 10곳 모두 ‘뫼달’ 당하는 취업난, 알바비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삼각갑에 컵라면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 같은 세대로서 공감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홍희진 후보 프로필  
기호 5번·1994년생  
현)진보당 공동대표  
현)진보당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TF 공동단장  
전)성신여대 30대 부총

학생회장  
전)진보당 인권위원장  
전)김재연 대통령 선거 후보 ‘2030여성 선대위’ 위원  
전)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청년선대위 ‘다시만들세계2030위원회’ 부위원장  
전)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나에게 지방선거란? ‘변화의 시작’이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생, 청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북구에 31세 구청장 후보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가 제1공약은 민간·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만든 ‘성북형 상생학사’로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홍 후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원룸 월세인데도 60만원, 70만원은 우습게 넘어가고 심지어 11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는 학생들을 만났다”며 “그리고 이런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통학시간에 왕복 4시간을 쓰고 있다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비싼 대학가 월세가 대학을 다니며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대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성동구에서 이미 진행한 사례가 있는 상생학사를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약을 꼭 이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